

건강 칼럼

다른 질환과 오인하기 쉬운 '경추 척수증', 정확한 진단 중요

최근 스마트폰 등의 전자 기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거북목, 목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인해 목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목디스크는 목 통증뿐만 아니라 손, 팔이 저린 증상이나 감각 둔화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 이에 통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목디스크를 의심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경추 척수증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경추 척수증은 경추에 위치한 척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압박을 받아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일컫는다. 여기서 척수란, 척추 맨 윗부분의 경추 사이에 있는 뇌에서부터 시작해 사지로 뻗어 나가는 신경다발을 말한다.

경추 척수증은 척수를 압박하는 병변 등으로 인해 척수관 내 척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한다. 주요 원인에는 △경추 추간판의 심한 탈출 △경추 및 흉추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관 직경 감소 △후종양과 골화증/황색인대 골화증(인대가 골화되어 척수를 압박하는 질환 등)이 있다.

목디스크와 달리 통증을 동반하

는 일이 흔하지 않기에 주로 손에서 이상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 손의 근력 약화를 시작으로 손놀림이 둔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등의 감각 증상이 나타나며, 세밀한 손 운동에 장애가 생겨 젓가락질, 필기와 같은 정교한 손동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추 채우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도 어려워질 수 있다.

상지뿐만 아니라 하지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 근력 약화로 보폭이 넓어지거나 달력거리며 걷는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을 방치하면 대소변 장애, 하지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다. 증상이 뇌졸중과 유사해 오해하는 일이 잦으나, 편측 마비가 나타나지는 뇌졸중과 달리 경추 척수증은 양측 마비를 유발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 같은 증상이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경추 척수증은 목디스크, 뇌졸중 외에도 종, 종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 등 비슷한 양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숙련된 의료진에게 질환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 의심할 수 있으며, MRI를 통해 척수 압박, 척수 부종, 기질적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추 척수증은 척수가 심하게 압박받아 혈액 공급이 감소되어 있고, 신경의 허월 상태가 지속하므로 신경 기능 상실과 신경 세포 과사가 뒤따른다. 또한, 척수는 중추신경으로서 한번 죽은 신경은 재생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수술 치료 외에는 증상을 호전

할 방법이 없다. 이에 압박받는 척수나 신경근의 영구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수술은 척추관이 좁아져 있거나 어떠한 원인에 의해 척수가 눌리는 상태이므로,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 척추관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감압술 및 척추 유합술, 후궁 절제술, 후궁 성형술 등을 통해 척추 신경 감압을 시행할 수 있다.

경추 척수증은 목디스크 등의 질환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목디스크는 말초신경 압박으로 인해 목 통증과 손 또는 팔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경추 척수증은 중추신경 압박으로 인해 손 근력 약화, 손 활동 둔화 등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통증이 거의 없어 증상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방치 시 하지 마비 등의 심각한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소 조금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면밀히 살핀 후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민호

김포 연세대비료병원 신경외과 원장

사설

예산안 손놓고 의원들 유럽행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손을 놓은 채 해외로 나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새해 예산안이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미 훌쩍 넘겼다. 특히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소속 위원 17명 중 8명이 지난 11일 본회의가 끝난 뒤 시차를 두고 유럽으로 출국했다.

정개혁위는 선거 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이다. 이들은 17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아일랜드·프랑스·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안 됐는데 해외에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도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유럽 국가·의회 등과 일정을 잡았

기 때문에 갑자기 취소하는 게 오히려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일정 자체가 정기국회(12월 9일) 이후였는데, 예산안이 정기국회 이후로도 처리가 안 될 건 생각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들의 주장도 일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해당 국가 의회와의 신뢰, 정치개혁 문제도 분명 중요하다. 다만, 국가 예산은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고, 예산심의권은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장 회사채 발행을 늘리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막대한 골목에 직면할 수 있다.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전용택시

최근 전주시설관리공단이 2023년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제공할 '교통약자 전용 택시(일차 택시)' 사업자를 모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전주시 개인 택시 사업자에 한한다.

또 만 65세 미만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기한 안에 전주종합경기장에 있는 교통약자지원부(이지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서를 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교통 약자 전용 택시는 시각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교통 약자 특장 차량, 비 휠체어 교통 약자는 교통 약자 전용 택시로 이용 체계가 이원화 돼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교통 약자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 더 "교통 약자 이동 권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설공단은 지난 11월 수능시험 당일 교통 약자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공단은 11월 17일 대학 수험능력시험을 치르는 교통 약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했다.

공단은 교통 약자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을 자녀로 둔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전주 시내권에 한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 시작 전까지 고사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지콜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의 교통 약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이 앞으로도 교통 약자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파월 "인플레이션 2% 달성 때까지 금리 인하 없을 것"



파월 "인플레이션 2% 달성 때까지 금리 인하 없을 것"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키이우 공원에서 딸 그네 밀어주는 아빠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공원에서 한 남성이 그네 타는 딸을 밀어주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